

미국에 있어서 종교개혁사 연구 현황

홍 치 모*

머리말

필자는 1967년 종교개혁 45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종교개혁의 역사적 해석과 연구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¹⁾ 그러나 당시 필자는 젊은 혈기에 의욕만이 강했을 뿐이었다. 그때까지 루터와 종교개혁사에 관해서 쓴 논문들과 저서들을 수집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것은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서구의 종교개혁사 연구는 눈부신게 성장 발전하였고 연구분야의 지평선은 넓어질대로 넓어졌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도 다양해 졌기 때문에 필자는 감히 오늘의 종교개혁사 연구 현황을 어디서부터 착수해야 좋을지 그 실마리를 찾기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필자는 찾기 어려운 실마리를 풀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우선 종교개혁운동이 발생한 독일을 위시하여 영국과 프랑스(스위스를 포함) 그리고 미국 등을 나라별로 구분하여 각국의 연구현황을 고찰하여 서술하는 것이 서술 상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한 나머지 각 나라별로 서술하기로 하였다. 순서 상 독일부터

* 역사학 교수

- 1) 홍치모, "종교개혁의 역사적 해석과 서술에 관하여" 역사연구 제 20호(1968.9), PP.340-380 위의 논문은 필자가 1984년에 간행한 <복구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성광문화사, 1984)에 재 수록하였음. PP.197-228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으나 필자는 임의로 미국부터 시작하여 영국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등의 순서로 서술하려고 한다. 단 서술에 있어서 각 나라별로 진행하되 그것은 제각기 독립된 서술이 될 것이다. 금번에 한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종교개혁사 연구의 현황이 될 것이나 그 배경은 미국 교회사학회가 창립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가 될 것이다. 동학제위의 양해를 구해 마지않는다.

(1)

현재 미국에 있어서 매년 계간지를 간행하면서 역사연구에 이바지하고 있는 학회중에서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학회는 <16세기 사학회>이다. 이 학회가 창설되기는 1960년대 초라고 기억되거나와 그전까지 종교개혁사 연구에 관한 논문은 주로 미국교회사학회에서 계간지로 간행하고있는 <Church History>지에 게재되곤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어서 종교개혁사연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고 할 것 같으면 1960년대를 전후하여 나누어서 고찰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1960년까지 간행된 종교개혁사에 관한 논문들은 주로 미국 교회사학회지에 발표되었으므로 미국에 있어서 종교개혁사연구의 발자취를 고찰한다는 것은 곧 미국 교회사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종교개혁사가들의 연구 활동을 고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종교개혁사가로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크게 활동한 사람은 역사가 Philip Schaff 교수(1819-1893)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 미국에 있어서 교회사연구의 선구자는 Schaff 교수 자신이었고 그가 타계할 때까지 미국은 그의 활동의 독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Schaff 교수는 본래 스위스 태생이지만 공부는 독일에서 하였다. 독일의 명문 Tübingen 대학과 Halle 대학 그리고 Berlin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Ferdinand Christian Baur (1792-1860)와 Friedrich와 A. G. Tholuck(1799-1877) 그리고

Johann A. Neander(1789-1850)등의 신학사상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1842년 Berlin대학에서 교수자격 논문이 통과되었을 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Mercersburg에서 초청장을 받게 되었다. 그곳에 새로 설립되는 German Reformed Seminary가 교수로 초빙하는 것이었다. 그는 1843년 미국으로 건너가 1844년 German Reformed Seminary의 교수가 되었다. 1844년 8월부터 1870년까지 약 26년간 교수하였고 그 후 미국 뉴욕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초청을 받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긴 후 1893년 타계하기까지 20여 년간을 유니온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로 활동하였다.²⁾

Schaff 교수의 생애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사항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지적할 것 같으면 우선 Schaff 교수는 1888년 미국교회사학회(American Society of Church History)를 창건하였고 1893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5년간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둘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노작이요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8권을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첫 권이 간행된 것은 1858년이었다. 이 8권의 교회사 중에서 중세교회사 부분은 Schaff 교수가 타계한 후 그의 아들 David이 집필함으로써 완성하였다. 이 8권의 교회사 중에서 Schaff가 심혈을 기울이고 집필한 부분은 <종교개혁 시대>이다. 그러므로 Schaff 교수가 집필한 종교개혁사에 관해서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R. M. Kingdon 교수는 Schaff 교수의 종교개혁사 서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2) Philip Schaff에 관한 저서와 논문은 많지만 편의상 3권만을 소개한다.

Stephen R. Graham, *Cosmos in the chaos: Philip Schaff's Interpretation of Nineteenth Century American Religion* (Eerdmans, 1995)

George H. Shriver, *Philip Schaff: Christian Scholar and Ecumenical Prophet* (Mercer University Press 1987)

Klaus Penzel, ed., *Philip Schaff: Historian and Ambassador of the Universal church* (Meran University Press, 1991)

첫째 Schaff 교수는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적 무대를 독일과 스위스로 거이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스위스계 독일인이라는 것과 그의 교육배경도 독일이라는 것이다. 훗날 그가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도 오래동안 독일에서 건너온 이민 공동체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아마도 Schaff 교수가 받았던 역사적 제약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의 관심은 루터의 종교 개혁과 Zurich시와 Geneve시에서 전개되었던 개혁운동에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것은 그의 성장배경에서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Schaff 교수의 관심은 종교개혁 운동에 있어서 지적(知的) 요소와 신학적(神學的) 요소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표명했고 다음은 정치적 요소에 대해서 서술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종교 개혁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정황이라든가 대중들이 주고받은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마도 Schaff 교수가 공부하고 있던 1850년 전후에 있어서 독일의 정신적 풍토는 낭만주의 운동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때였으며 Hegel의 변증법적 사고가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 만큼 많은 지식인들은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사상의 형성력>에 관해서 연구를 집중시키고 있었던 때였다. Schaff 교수가 쓴 <Creeds of Christendom>은 아마도 그 시대의 지적 풍토를 대변해 주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Schaff교수의 교회사 연구는 신학연구를 위한 시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Kingdon 교수는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회에 가치가 있는 즉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신학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문이 바로 교회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역사가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역사연구에 있어서 분석적 탐구에 입각한 역사서술이 아직 덜 발달했던 시대였으므로 개별적 내지 세부적인 주제로 쓴 논문은 별로 많지 않지만 저술을 통해서 풍기는 그의 사풍은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다. 여하튼 Schaff 교수의 <기독교회사>중에서 종교개혁 부분이 그의 저서 전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기술했다는 것을 거듭 지적한다.³⁾

(2)

1893년 Schaff 교수가 서거한 후 오래 동안 종교개혁사 분야를 연구한 역사가는 Henry Preserved Smith(1847-1927)의 아들 Henry Preserved Smith 二世(1880-1941)였다.

미국 북장로교 목사요 구약학자였던 Smith 교수의 부친은 19세기 말엽 독일 유학시절에 성경연구에 있어서 소위 고등비평(higher criticism)을 받아들였다. 미국에 귀국한 후 Ohio 주에 있는 Lane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신학을 가르치고 있던 도중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반대함으로 1892년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 동시에 신학교도 사임하고 나중에는 미국 뉴욕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구약교수요 도서관장으로 봉직하였다.⁴⁾

Smith 二世 교수는 Amherst대학과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여 1907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후 유럽에 건너가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과 독일의 베를린대학교에서 각각 연구하였다. Smith 교수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을 때 학문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미국에 있어서 소위 신사학(新史學)-New History-의 제창자요 지성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James Harvey Robinson 교수였다. Smith 교수가 활약했던 1920년에서 3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사회가 종교적, 문화적, 학문적, 도덕적으로 아직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때였다. 따라서 Smith 교수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아들 또한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 시대에 역행하는 자유주의적이며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3) Henry W. Bowden, ed. *A Century of church History : The Legacy of Philip Schaff*.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Carbondale and Edwardsville, 1988), pp. 98-99

4) Henry Preserved Smith, *The Heretics defense*(New York, 1926)을 참조.

Smith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Luther's "Table talk" : a critical study>였다.⁵⁾

이 논문에서 Smith교수는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여러 Text들을 수집하여 각 Text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비교, 고증함으로써 참으로 루터가 한 말이라고 사료되는 것만을 골라 편집한 비평적인 탁상어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시도의 목적은 루터의 신학사상보다는 그의 인간성에서 풍겨나오는 인격성을 엿보자는데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이 간행 된지 5년 후에 루터의 전기를 간행하였다.⁶⁾ Smith 교수의 루터전기는 영어로 쓰여진 것으로는 최초의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⁷⁾ Smith 교수의 루터전기는 다분히 루터라는 한 개인의 정신적 진보와 그의 정신적 투쟁에 초점을 두고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루터의 신앙과 신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미국의 저명한 르네상스사가였던 W. K. Ferguson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Smith 교수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를 Smith 교수는 독일의 신학자 Ernst Troeltsch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⁸⁾

한 마디로 말해서 Smith 교수의 루터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 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루터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유정신(사상)을 제창한 최초의 선구자요 둘째는 회의주의(skepticism)의 창시자이며 마지막 셋째는 현대의 비교리적(非敎理的) 창시자로 규정하였다. 루터의 위대성은 또한 중세의 <전제>와 <폭군>을 타도한데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Smith 교수는 루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His true

5) Henry Preserved Smith, *Luther's "Table talk" a Critical Study*(New York, 1907)

6) H.P. Smith, *The Life and letters of Martin Luther*(Boston, 1911,1914)

7) E. E. Sperry, *American journal of Theology*, XV(1911), PP. 643-646

8) Wallace K. Ferguson, *The Renaissance in historical thought* (Boston, 1948). PP. 287-289

originality is his character, his greatest work, his life, his most remarkable achievement himself)⁹⁾

Smith 교수의 대표적 저서는 1920년 *The Age of Reformation* 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문자 그대로 종교개혁시대의 역사서이다. Smith 교수의 <종교개혁의 시대>는 한 마디로 16세기 유럽의 정신의 변화를 서술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전부 13장으로 되어있거니와 첫 부분에 해당하는 8장은 각 나라에서 발생한 종교개혁과 그 정치적 배경을 기술하였고 나머지 5장은 16세기 유럽의 문명을 전반적으로 서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맨 마지막 장에서는 지난 400년 동안 유럽에서 종교개혁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서술하였는가를 기술하였는데 말하자면 종교개혁사 연구에 관한 사학사적 고찰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그의 저서 <종교개혁의 시대>를 분석해 볼 것 같으면 특이한 점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종교개혁의 원인을 설명할 때 Smith 교수는 루터의 신앙의 자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유일한 Text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보다는 당시 민중들이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루터라는 인간이 그와 같은 종교를 시대의 정신에 맞추어서 조정(adjustment)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시대는 개인주의사상이 대두했던 시대요 민족주의사상과 자본주의가 흥기하고 있던 시대였다.¹⁰⁾ 따라서 루터가 창시한 개신교사상은 종교에 있어서 변화를 의미하는데 당시의 사회적 변화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비록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그 한 사람의 종교적 동기에서 유발

9) H.P. Smith, *Life and letters of Martin Luther*(Booston, 1911), P.18

Smith 교수는 <루터의 서신과 당대의 서신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서간집을 발행하였다. 제 1권은 1507-1521까지의 서신을 수록하였고 제 2권은 1521년에서 1530년까지의 서신을 수록하였다. 두 권 모두 philadelphia에서 간행되었거니와 제 1권은 1913년에 간행하였고 제 2권은 1918년에 간행하였다. 제 2권은 그의 제자 Charles M. Jacobs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편집하였다.

10) H. P. Smith, *Age of the Reformation* (New York, 1920), PP. 743-750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회가 변화를 겪고 있던 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원인중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 같으면 생물학적 여러 법칙에 의해서 진보하는 가운데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변형되어지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알 수 없는 힘의 실체인 것이었다.¹⁰⁾

이와 같은 Smith교수의 해석은 기독교 신앙을 떠난 자유주의적 내지 회의주의적 해석이거니와 그 밑에는 Dawin의 생물진화론적 진보사상이 깔려있다. 그러므로 역사에 있어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여 뒷받침이 됨으로서 나타나는 지적 성취를 가장 중요시하였다.¹¹⁾ 그리하여 그에 의할 것 같으면 종교개혁 당시 지적으로 가장 원숙미를 나타낸 사람은 Erasmus였는데 Erasmus야말로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의 사도였다는 것이 Smith 교수의 결론이다.

끝으로 Smith 교수의 두 번째 역작은 Erasmus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1923년 Erasmus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그의 위치에 관한 저서를 간행하였다.¹²⁾ Erasmus에 관한 연구는 동시에 문예부흥과 종교개혁과의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하도록 만든다. Smith 교수는 Luther의 전기를 쓰기 시작 할 무렵부터 문예부흥 운동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Erasmus에 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찍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10년이 지나서 구체화 되었다. Smith 교수는 어쩌면 Luther보다는 Erasmus에게 더 많은 연모와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그가 Erasmus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던 존경과 사랑을 유감없이 표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의 Erasmus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0) H. P. Smith, *Age of the Reformation* (New York, 1920), PP. 743-750

11) H.P. Smith, *Ibid.*, PP. 12-13

12) H.P. Smith, *Ibid.*, PP. 515-563.

13) H.P. Smith, *Erasmus: a Study of his Life, Ideals, and Place in History* (New York, 1923)

Erasmus는 건전한 학문과 합리적인 경건의 위대한 대표적 인물이었으며 또한 도덕적 인간이요 교리없는 기독교를 건설하려고 했던 선구자였다. 그의 기독교야말로 20세기에 있어서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 가장 알맞게 받아드릴만한 형태의 것이었다고 극찬하였다. Erasmus는 예수의 추종자로서 폭군적 교리의 적대자로서 당대의 문명인으로 간주되었다. 투쟁의 시대에 있어서 폭력없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평화의 사도로서의 Erasmus에게는 영광과 불행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었다는 것이 Smith 교수의 견해였다. 그러나 훗날 Smith 교수는 Erasmus를 지나치게 찬양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¹⁴⁾

Smith 교수의 부친이 구약연구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고등비평가였다면 아들 Smith 교수는 종교개혁사 연구에 있어서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역사가였다고 할 수 있다.

(3)

Smith 교수 다음으로 미국에서 종교개혁사 연구에 가담한 역사가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R. H. Bainton(1894-1983)과 A. Hyma(1893-1979) 교수가 있다. 그리고 1925년 독일서 미국에 이민 온 Wilhelm Pauck (1901-1981) 교수가 있다. 이들은 모두가 1945년에서 1960년대 초까지 활동했던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었다. Bainton교수는 영국태생으로서 이민을 왔으며 Hyma 교수는 화란태생의 이민자였다. Pauck 교수는 독일태생이었다. 한마디 더 부연한다면 Bainton 교수는 루터의 전기를 씀으로써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Hyma 교수는 Erasmus의 전기를 써서 화란여왕으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Pauck 교수는

14) R. H. Bainton, "George Lincoln Burr: his life : selection from his writings", Lois Oliphant Gibbons ed. (Ithaca, 1943), PP.91-92
Smith교수는 은퇴할 때까지 미국 Cornell대학교의 역사학 교수로 있었다.

Martin Butzer의 윤리사상을 연구함으로써 종교개혁사 연구분야에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Pauck 교수는 1925년 미국에 오기까지 주로 Berlin대학에서 Harnack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동시에 Karl Barth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훗날 미국에 망명 온 Paul Tillich 교수와는 친구사이였고 Union신학교에서 같이 교편을 잡기도 하였다. Pauck가 남긴 저서는 별로 많지 않지만 그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종교개혁사 전공자들에게 루터의 사상을 가르치면서 학위 논문을 지도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꼈다.¹⁵⁾ Pauck 교수는 자기와 같은 연배 중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1936년에 미국교회사학회의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1943년부터 1953년까지 미국교회사학회가 간행하는 *계간지의 편집인*으로 봉사하였다. 그가 시카고 대학교의 신학부에 재직하고있을 때 키운 수제자중에는 Jaroslav Pelikan교수와 Brian Gerrish 교수가 있다.¹⁶⁾ Pauck 교수는 미국 남부에 있는 Vanderbilt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말년에는 Stanford대학교의 청빙을 받고 그곳으로 부임하여 서가할 때까지 봉직하였다. 사실 Pauck 교수의 업적을 Bainton교수나 Hyma교수와 비교할 것 같으면 좀 뒤진 감마저 없지 않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만큼 그의 학문적 업적 또한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다음 미국에 있어서 종교개혁사 연구의 주인공은 R. H. Bainton교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는 1940년을 전후해서 논문과 저서

15) Wilhelm Pauck, *From Luther to Tillich: The Reformation and Their Heirs*, ed. Marion Pauck (San Francisco, 1984).

Wilhelm Pauck, *Heritage of the Re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

16) Jaroslav Pelikan and Helmut T. Lehmann, eds.,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54vols., (ST. Louis: Concordia, 1955-1976)

B.A. Gerrish, *Grace and Reason: A Study in the Theology of Luther* (Oxford: Clarendon, 1962)

B.A. Gerrish, *The Old Protestantism and the New: Essays on the Reformation Herit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를 간행하기 시작하여 1970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큰 활동을 한 위대한 역사가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Bainton교수는 1894년 3월 30일 영국 Derbyshire 의 Ilkeston 이라는 마을에서 영국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94년 3월 30일에 태어난 Bainton은 1898년 5월 19일 당시 영국수상 Gladstone 이 죽던 날 배를 타고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철저한 평화주의자였으므로 Boer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영국 회중교회는 이 문제로 인하여 친목(Fellowship)이 깨지고 양파로 분열되어 반목과 대립을 일삼게 되었다. Bainton의 부친은 교회의 재결합을 위하여 자신이 영국을 떠나는 것이 덕이 될것이라고 판단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던 것이다. 그곳에 얼마 있지 않고 Bainton가족은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Bainton 교수는 6세 때부터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미국시민이 되었다. 191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곧 Yale대학교 신학부에 진학하여 1917년 에 신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4년 후인 1921년에는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학위를 취득하자 곧 Yale대학교 신학부의 시간강사로부터 출발하여 전임강사와 조교수를 거쳐 1936년에는 Titus street라는 명칭을 가진 정교수가 되었으니 그의 나이 42세 때였다. 저자가 직접 만나 교제해 보았지만 그는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소박하고 겸손한 인상을 품길 뿐이었다. 지적 우월감이나 교만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20개국의 언어를 통달한 천재적 학자였다.¹⁷⁾

Bainton 교수가 종교개혁사에 관한 연구논문과 저서를 간행하기 시작한 것은 1935년부터라고 생각한다. 그의 연구 과제는 재세례파 운동의 정신과 성격에 관해서였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평화사상을

17) Franklin H. Littell, *Reformation Studies* (John Knox Press, 1962), PP.11-18. 이 책은 Bainton교수의 제자들이 은사의 은퇴를 기념하여 바친 논문집이다. 이 책에서 미국 의 여류 신학자인 Georgia Harkness가 Bainton교수에 관해서 간단하게 프로필을 써서 게재하였다.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가 성장함에 따라 종교 개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시선은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프로테스탄트 교회로부터 동시에 미움과 박해를 받고 정치없이 유리방황 할 수밖에 없었던 재세레파에서 고귀한 신앙정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재세레파의 David Joris와 Bernardino Ochino에 관한 연구서를 각각 독어와 스페인어로 간행하였다.¹⁸⁾ 그런데 그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경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Bainton 교수가 56세가 되는 1950년 루터의 전기를 간행함으로써 일약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이었다. 아마도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Bainton 교수가 쓴 루터의 전기는 원사료를 철저히 고증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루터의 모습을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기술한 최초의 역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총 22장에 422쪽이 되는 이 책은 단순한 루터의 전기가 아니라 루터를 둘러싼 그 시대의 정치와 문화와 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면서 소위 독일의 종교개혁사를 엮은 걸작이다. 특히 16세기 당시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목판화를 삽입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의 특이한 솜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해인 1951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9명의 이단자들에 관해서 쓴 저서를 간행하였고 이어서 종교개혁운동의 개설서를 간행하였다.²⁰⁾

18) R. H. Bainton, *Widertaufer und Kampfer zur Toleranz in 16 Jahrhundert*(1937)

R. H. Bainton, *Bernardino Ochino, Esule e Riformatore Senese del Cinqueceesto.*, 1487- 1563(1941)

19) R. H. Bainton, *Here I stand : A Life of Martin Luther* (Abigdon Press, 1950)

20) R. H. Bainton, *The Travail of Religious Liberty : Nine Biographical studies*(1951)

R.H.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eacon Press, 1951) 이 책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에서 번역되어 19--년에 간행되었다.

Bainton교수 밑에서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지적할 것 같으면 재세례파 연구자인 F. H. Littell교수와 칼빈의 윤리사상을 연구한 故 Georgia Harkness 여사이다. 현재 미국서 활약하고 있는 원로급 종교개혁사가들은 거의가 Bainton교수의 제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같은 무렵 미국의 종교개혁사가로서 명성을 떨친 사람이 있었다면 Ernest Schwiebert 교수이다. 그는 앞서 Smith 교수 밑에서 연구한 독일계 학자로서 1950년 <루터와 그의 시대>를 간행하였다. 총 5부 22장으로 된 이 책은 단행본으로는 892쪽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다.²¹⁾

Schwiebert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루터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시도했다. 첫째는 루터와 공동생활의 형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과 둘째는 대학개혁운동으로서 종교 개혁운동을 보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Wittenberg 대학교 안에서 일어난 성서적 인문주의운동(Biblical Humanism)이 종교개혁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 Schwiebert 교수의 해석이다. 그는 Preserved Smith 교수지도하에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면서 A. Hyma 교수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독일에 건너가 Erlangen 대학교에서 이 책을 완성하였다.

(4)

종교개혁시대를 연구한 역사가로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Harold Grimm 교수이다. 그는 평생 미국 Ohio대학교와 indiana대학교에서 종교개혁시대를 강의하다 서거한 석학이었다. 그는 Schwiebert 교수와 비슷한 동년배로서 종교개혁사를 연구하였다. 다수의 논문들을 교회사학회가 간행하는 잡지를 비롯

21) E. G. Schwiebert, *Luther and his times*. (Concordia Press, 1950)
E. G. Schwiebert, *The Reformation from a New Perspective, Church History*, vol 17. (1948), PP. 3-31

하여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1954년 <종교개혁의 시대>를 간행하였다.²²⁾

1950년과 1951년에 A. Hyma 교수는 <공동생활의 형제들>과 <문예부흥에서 종교개혁>으로 라는 두 권의 저서를 간행하였다. 그는 Bainton 교수 보다 한 살 앞선 동년배의 역사가로서 중학생 때 화란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개혁파교회 출신 역사가였다. 일찍 Calvin대학을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잠시 North Dakota 대학교에서 강의하다 곧 모교인 Michigan 대학교의 초청을 받고 은퇴할 때까지 그 곳에서 가르쳤다. 1924년 그가 쓴 학위논문은 당시 미국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The Christian Renaissance "A History of Devotio Moderna(Grand Rapids, 1924)는 소위 북구 문예부흥운동의 기원과 토착적 성격(Autochthonous Nature)를 규명한 실증적 연구서로서 주목을 받게되었다.²³⁾

루터의 소년시절의 교육적 배경을 고찰할 것 같으면 루터의 글 속에 "Nullbruder"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로 New Brother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의 배경은 곧 공동생활의 형제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거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Hyma교수는 미국의 역사가로서 처음으로 실증으로 규명하였다. 소위 북구의 선구적 三大 인문주의자였던 Rudolf Agricola, Wessel Gansfort, Alexander Hegius 등이 선구자로 활약하였거니와 그들 중 Hegius의 제자였던 Erasmus는 공동생활의 형제단 출신이었다. 그러면 이 단체를 창설한 장본인은 누

22) Harold J. Grimm, *The Reformation Era 1500-1650*(New York, 1954) 1956년에는 제 3판이 간행되었다.

23) A. Hyma, *The Christian Renaissance A History of the Devotio Moderna*(Grand Rapids, 1924)

A. Hyma, *Brethren of the Common Life*(Grand Rapids, 1950)

A. Hyma, *Renaissance to Reformation*(Grand Rapids, 1951)

구였는가? 그 주인공은 Gerard Groote라는 실천적 신비주의자였다. Groote의 신앙정신을 계승한 三代 후계자가 바로 Thomas a Kempis였다. Hyma교수는 루터의 사상적 계보로서 공동생활의 형제단과 연결시키는데 공헌한 역사가였다. Hyma교수는 또한 Erasmus 연구가로서 미국을 대표했던 학자였다.²⁴⁾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Hyma교수는 공동생활의 형제단이 표방했던 슬로건은 "Devotio Moderna"였으며 이 운동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상징하는 북구 문예부흥운동의 핵심이었다. 그러므로 북구 문예부흥을 가리켜 <기독교인문주의 (Christian Humanism) 또는 성서적 인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기독교 고전을 연구하는데 주력했던 공동생활의 형제단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⁵⁾

다음은 재세레파 연구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917년 독일에서는 비록 세계일차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때이기는 하였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4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계기로 루터 연구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소위 <Luther Renaissance>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루터 전집 weimar 版이 새로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에서도 루터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미국에 집단적으로 이주한 재세레파들의 후손들이 Indiana주 북부에 자리잡고 있는 Goshen College를 중심으로 학술지를 간행하게 되었다. 그것이 Mennonite Quarterly Review이다. 이 계간지에는 주옥같은 논문들이 게재되었거니와 재세레파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을 분류할 것 같으면 두 종류가 된다. 하나는 재세레파에 속한 학자들이고 나머지는 재세레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선 재세레파에 속하지 않은 역사가를 꼽을 것 같으면 R.

24) A. Hyma, *The Youth of Erasmus*(New-York, 1931,1959)

25) R. Kekow, *Luther und die Devotio Moderna* (Dusseldorf, 1937)

W. M. Landeen, *The Devotio Moderna in Germany in 15 the Century, A Study of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State College of Washington, 1956-1958)

H. Bainton, Franklin H. Littell, George Williams가 있고 재세레파에 속한 학자로는 작고한 John Horsh와 Harold S. Bender 그리고 Robert Friedman과 John Haward Yarder가 있다. 미국에서 재세레파 연구의 창시자는 John Horsh이다. Horsh는 미국에서 재세레파의 지적 기반을 닦아 놓은 선구자였다. 그는 재세레파중에서 근본주의적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²⁶⁾

Horsh 다음으로 재세레파연구에 공헌한 학자는 Robert Friedman으로 R. H. Bainton 교수의 적극적인 알선과 후원으로 1940년 오스트리아로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되었다. Horsh의 사위요 후계자인 Harold S. Bender에게 Friedman을 소개함으로써 그는 미국 인디애나주 고셴(Goshen)에 있는 Goshen College에서 교편을 잡게 됨으로서 재세레파 연구를 미국서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재세레파 연구의 계보는 John Horsh와 Robert Friedman 그리고 Harold S. Bender로 이어진다.²⁷⁾ Bender는 1924년 Goshen College에서 메노나이트 역사학회를 장인과 더불어 창설하였고 Goshen 대학 내에 재세레파 연구를 위한 도서관을 설치하였다. 이 도서관은 현재 화란과 독일에 있는 메노나이트 도서관을 훨씬 능가하는 훌륭한 세계최대의 도서관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Bender는 1927년 비로서 Menonite Quarterly Review를 간행하였다. 이 잡지는 현재 급진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는 중심적 기관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erder는 자신의 연구활동은 물

26) John Horsh, "The Rise and Early History of the swiss Brethren Church, II. The Beginnings in Zurich" MQR VI, 1932

John Horsh, *The Hutterian Brethren*, Goshen, Indiana, 1931

Monnointe Quartely Review -vol21, No.3은 John Horsh를 추모하는 기념-으로 편집하였다.

27) Robert Friedman, "Conception of the Anabaptist," Church History, IX (October 1940).

Friedman의 저서와 논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논문이 바로 --파의 --에 관해서 쓴 것일 것이다.

론 공동사업에도 놀라운 업적을 많이 남겼다.²⁸⁾ 한가지 특기할만한 업적은 세계2차대전이 발생하기 전 독일에 있는 재세레파에서 Mennonitisches Lexikon을 발간하다가 전쟁으로 중단한 것을 인수하여 그 집필범위를 미국까지 포함시켜서 집필자 수백 명을 동원하여 일만항목을 전 4권에 수록함으로써 간행을 완성하였다(1955-1959). 이 결과 재세레파에 대한 관심을 교회사가 뿐만 아니라 사상사자들에게 까지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미국의 재세레파들의 사관을 확고한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²⁹⁾ 여기서 Bender의 사관을 간단하게 요약함으로써 재세레파 진영내의 선구적 연구 업적에 관한 소개를 끝맺기로 한다. Bender는 Ernst Troeltsch가 세운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재세레파를 sect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교파로서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스위스 Zurich시에서 발생한 스위스형제단(Swiss Bretheren)을 재세레파의 원형으로서 파악하였고 동시에 Max weber의 이론을 도입하여 <이상형>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의 Vision의 본질은 단순한 성서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Nachfolger Christi)에 있으며 그 제자성의 실천의 마당으로서 sect적 교회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재세레파의 신앙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데 있는 것보다는 <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Bender가 쓴

28) Harold S. Bender, "Anabaptist Vision, in *The Recovery of the Anabaptist Vision*," ed. G. F. Hershberger(Scottsdale, Pa. : Monnoite Publishing House, 1957)

Harold S. Bender, "Historiography of the Anabaptist,"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Vol31(1957, 4월) 이하. MQR로 생략함

Harold S. Bender, "The First Anabaptist Congregation: Zollikon, 1925" MQR Vol27, (1953, 1월)

Albert N. Kiem, *Harold S. Bender 1897-1962*(Scottsdale, Pa: Herold Press, 1998)

29) MQR Vo 138. 제 2호(1964)는 H.S. Bender를 기념하여 특집호로 편집하였다. Ernst H. Carrol, "H. S. Bender and Anabaptist Research," in *The Recovery of the Anabaptist Vision*, ed. by Hershberger, 1957

유일한 저서로서 Conrad Grebel(1498-1526)의 전기는 스위스 형제단의 기원과 신앙정신을 기술한 聖人傳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한편 Bender는 Thomas Muntzer라든가 Zwickau의 사도들이 스위스 형제단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진영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는데 주력하였다.³¹⁾

다음은 재세례파 밖에서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재세례파밖에서 활동한 역사가로는 Franklin Hamlin Littell과 George Williams 그리고 Hans-Joachim Hillerbrand를 꼽을수 있다. Little은 재세례파의 교회관을 연구하여 역사가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굳혔고³²⁾ George Williams는 <급진 종교개혁>을 연구함으로써 일약 명성을 떨치게되었다.³³⁾ 이 두 사람은 재세례파에 대해서 동정적 내지 지지하는 입장에서 연구한 역사가라고 할 것 같으면 Hillerbrand는 재세례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서 연구한 역사가이다. Hillerbrand교수는 1960년 전까지 재세례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종파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그들 스스로의 주관성에서 탈피하여 좀더 객관적이며 공정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Hillerbrand은 또 미국의 재세례파가 이룩한 연구업적을 인정하면서도 스위스 형제단의 유일성과 독창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또한 다른 재세례파들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Grebel과 Thomas Muntzer와의 사상적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대해서 Hillerbrand는 양자 사이의 사실관계

30) H. S. Bender, Conrad Grebel 1498-1526(Goshen, Indiana, 1950)

31) H.S Bender, "The Zwickau Prophets, Thomas Muntzer, and the Anabaptist," MQR, Vol27(1953)

32) F. H. Littel, *The Anabaptist View of the Church*(Boston, 1958)

33) Groege H. Williams, *The Radical Reformation*(Philaderphia, 1962)

George H. Williams, "Studies in the Radical Reformation 1517-1618: A Bibliographical Survey of Research since 1939," *Church History*, vol 27(1958)

유일한 저서로서 Conrad Grebel(1498-1526)의 전기는 스위스 형제단의 기원과 신앙정신을 기술한 聖人傳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한편 Bender는 Thomas Muntzer라든가 Zwickau의 사도들이 스위스 형제단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진영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는데 주력하였다.³¹⁾

다음은 재세례파 밖에서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재세례파밖에서 활동한 역사가로는 Franklin Hamlin Littell과 George Williams 그리고 Hans-Joachim Hillerbrand를 꼽을 수 있다. Little은 재세례파의 교회관을 연구하여 역사가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굳혔고³²⁾ George Williams는 <급진 종교개혁>을 연구함으로써 일약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³³⁾ 이 두 사람은 재세례파에 대해서 동정적 내지 지지하는 입장에서 연구한 역사가라고 할 것 같으면 Hillerbrand는 재세례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서 연구한 역사가이다. Hillerbrand교수는 1960년 전까지 재세례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종파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그들 스스로의 주관성에서 탈피하여 좀더 객관적이며 공정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Hillerbrand은 또 미국의 재세례파가 이룩한 연구업적을 인정하면서도 스위스 형제단의 유일성과 독창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또한 다른 재세례파들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Grebel과 Thomas Muntzer와의 사상적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대해서 Hillerbrand는 양자 사이의 사실관계

30) H. S. Bender, *Conrad Grebel 1498-1526*(Goshen, Indiana, 1950)

31) H.S Bender, "The Zwickau Prophets, Thomas Muntzer, and the Anabaptist," *MQR*, Vol27(1953)

32) F. H. Littell, *The Anabaptist View of the Church*(Boston, 1958)

33) Groege H. Williams, *The Radical Reformation*(Philadelphia, 1962)

George H. Williams, "Studies in the Radical Reformation 1517-1618: A Bibliographical Survey of Research since 1939," *Church History*, vol 27(1958)

에 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하였다.³⁴⁾

(5)

1971년 8월 초순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st. Louise)시에서 제 4회 루터 연구가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명칭을 종교개혁사 연구가 대회라고 부를 수 있다. 내 기억으로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종교개혁사가들이 모두 참석함으로써 대회는 4일간의 회의를 대 성황리에 마치고 폐회하였다. 3일째 되는 날 각 분과별르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나는 <종교개혁과 도시>라는 분과에 참석하였다. 저자는 그때까지 종교개혁과 도시와의 상관관계가 어떠했는지 이 분야에 대하여 책을 읽어보거나 논문을 접해 본일이 전혀 없었다. 당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던 사회자는 Wisconsin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Robert M. Kingdon이었다. 이 세미나 석상에서 당시 독일의 신진 역사가 Bernd Moeller가 1962년에 간행한 <종교개혁과 제국도시>를 중심으로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과 도시공동체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즉 종교개혁을 수용한 도시와 수용하지 않은 도시 그리고 처음에는 수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돌아선 도시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와 같은 연구는 종전까지 개혁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전기적 연구와 개혁운동의 진행과정을 추적하는 것과는 그 연구의 성격이나 방법 있어서 매우 판이한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아날학파(Annals)나 구조사학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사회사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현재 독일에 있어서 종교개혁과 도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가들을 분류할 것 같으면 세 무리로 분류할 수 있다.

34) Hans Joachim Hillerbrand, "Die gegenwartige Taufferforschung: Fortschritt oder Dilemma?" in *Lebendiger Geist*, Festschrift fur H. J. Schaeps. 1959

첫째 Göttingen대학의 Bernd Moeller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고 둘째는 Tubingrn대학의 E. W. Zeeden교수와 V. Press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말기와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그룹이고 셋째는 Munster대학의 H. Schutop 교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교사적 도시연구> 그룹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제4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도시와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구 상호간의 교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1978년 5월 런던시에 있는 독일사 연구소는 <종교개혁의 사회사>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바 있다. 이보다 1년 전에는 (1977.3) Göttingen대학에서 서부 독일에 있는 학자들만을 초대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³⁵⁾ 두 심포지움의 결과는 저서로 간행되었다.

미국에서 <종교개혁과 도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구적 역사가는 압축시켜서 3인을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S. E. Ozment과 R. W. Scribner, 그리고 Thomas A. Brady이다.³⁶⁾ <종교개혁과 도시>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Moeller교수의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의 주장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중세말기의 도시의 도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의 상업조합이 시정(市政)에 참가하기 시작한 후 서부독일에 산재하고 있는 도시에서 시민들 상호간에 genossenschaft적인 정신이 왕성하

35) B. Moeller(ed.), *Stadt und Kirch in 16. Jahrhundert*(1978)

W. J. Mammsen(ed.), *Stadtburgertum und Adel in der Reformation*(1979)

36) S. E. Ozment, *The Reformation in the Cities: The Appeal of Protestantism to 16th Century Germany and Switzerland*(1975)

R. W. Scribner, "Circ Unity and the Reformation", *Past and Present* LXVI, 1975. Thomas A. Brady, *Ruling class, Regime and Reformation at Strassburg 1520-1555*(Leiden, 1978)

였다. 또한 이 정신은 공동체적으로 결합된 정신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일종의 연대의식이다. 도시는 단지 정치적 경제적인 결합체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공동체 성이 강한 <종교공동체: Sakrale Gemeinschaft>였다. 가령 한 사람의 종교적 위법자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시 전체의 수치요 범죄로 간주하는 공동의식이었다. 시참사회가 수도원 개혁을 지도했다는 사실은 성(聖)과 속(俗)이 하나가 되어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Moeller교수는 Franz Lau의 학설을 받아 종교개혁운동의 추진자가 시민이었으므로 <市參事會주도의 종교개혁>은 존재하지 않았고 시참사회는 도리어 종교개혁의 방해자였다고 주장하였다. 단 예외적인 도시도 있었다.³⁷⁾ 이들 예외에 해당하는 도시들은 <처음으로 종교개혁에 직면했을 때 짧은 기간 동안 주저하다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드려 종교개혁에 동참하였다. 시민들은 <市參事會주도하의 종교개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훗날 市參事會의 주도하에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3. 종교개혁사상이 도시의 생리와 성격에 적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와 개체성과 연관된다.

4. Zwingly와 Butzer의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인 도시와 루터파가 된 도시의 정치체제의 차이점을 지적함으로써 도시의 정치체제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Moeller의 도시 종교개혁론에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市參事會는 종교개혁운동을 저지하는 존재였다고 말하면서 5개 도시에서는 市參事會의 주도하에 개혁이 추진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다. 그리고 제국도시와 연방도시의 구조적 차이라든가 성격과 기능에 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미국의 Ozment 교수는 <도시에 있어서 종교개혁>에서 Moeller의 주장을

37) Nurenburg, Strassburg, Constanz, Memingen, Magdeburg시 등은 예외였다.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Moeller는 루터의 신학과 Zwingly와 Butzer의 신학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Ozment교수는 비판하기를 그것은 단지 각자가 처하고 있었던 상황이 달랐을 뿐 결과적으로 보아 양쪽의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루터의 정부관이나 국가관은 Zwingly나 Butzer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³⁸⁾ 그러나 Ozment교수의 종교개혁관은 로마교회로부터 벗어남으로서 얻어지는 <자유와 해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통적 견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세속적 해석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6)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크게 활약했던 종교개혁사가들 중에서 언급해야 할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Lewis W. Spitz와 Robert M. Kingdon 그리고 Heike Oberman이다. 또한 예외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젊은 루터>를 집필한 Erikson이다. Lewis W. Spitz 교수는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시에 있는 Concordia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교개혁사를 전공한 정통 루터파 종교개혁사가이다. 그는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간행하였지만 가장 학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저서로는 <독일 인문주의자들의 종교적 문예부흥>이다.³⁹⁾ Spitz교수의 사필은

38) S. E. Ozment, *The Reformation in the cities: The Appeal of Protestantism to Sixteenth-Century Germany and Switzerland*(1975)

39) Lewis W. Spitz, *Religious Renaissance of the German Humanist*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Lewis W. Spitz, *The Renaissance and Reformation Movement*, 2 vols.(St. Louise, Mo, 1980)그리고 *The Protestant Reformation 1517-1559*(New York, 1985)도 있다.

공정하고 차분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루터파의 역사적 정당성은 말하지만 어떤 주관적 편견이나 선전적 요소는 찾아 볼 수 없다. 미국 종교개혁사학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확고하다. 현재 그는 원로사가로서 여전히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Spitz 교수는 평생 일반대학교에서 가르쳤음으로 그 밑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교회사가가 된 사람은 없다. 종교개혁 분야를 전공하고있는 일반 역사가로는 James Kittelson과 Anne Schutte가 활동하고 있다.⁴⁰⁾

Robert F. Kingdon 교수는 현재 Journal of 16th Century 학회(學會)의 회장으로 있다. 그는 1940년대 중반 뉴욕시 소재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외교사를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교회사를 전공하게 되었다. Kingdon 교수의 어머니는 과거 평양 송실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윤산은 박사의 딸이다. 그러므로 Kingdon 교수는 윤산은 박사의 외손자가 된다. 그의 어머니의 교회적 배경은 장로교이지만 그 자신은 회중교회의 교인이다. 평생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 연구하는데 전념하였다. 비록 평생을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면서 일반대학교 사학과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Spitz 교수와 마찬가지로 교회사가가 배출하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직자들이 박사학위 과정을 밟으려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Wisconsin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Kingdon 자신은 스위스에서 특히 주네브시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을 연구하여 저서를 집필하였고 다수의 논문도 발표하였다.⁴¹⁾ Kingdon 밑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성직자는 4인이 있다. John P. Donnelly, Robert A. Kolb, Robert V. Schnucker, Jerome Friedman 이

40) James M. Kittelson, *Wolfgang Capito: From Humanist to Reformer*(Leiden, Brill, 1975)

Anne Jaebson Schutte, Pier Paola Vergerio: *The Making of an Italian Reformer*(Geneva: Droz, 1977)

41) Robert M. Kingdon, *Church and Society in Reformation Europe* (London, 1985) 이 책은 Kingdon 교수가 쓴 논문들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다.⁴²⁾

Spitz교수나 Kingdon교수 보다는 나이가 수년 아래인 Heiko Oberman은 본래 화관인으로 Oxford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195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초빙교수로 부임하여 9년 동안 그 르치다가 독일 Tubingen대학교의 부설기관인 종교개혁사 연구소의 책임자로 부임하여 그곳에서 은퇴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부인이 신경통에 신음하고 있던 중 의사의 권고를 받고 1984년 습기가 없고 태양이 비치는 미국 아리조나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된 아리조나 대학교는 Oberman교수를 석좌교수로 모셔들였다. 한국통인 교수는 서울에도 수차 방문한바 있다. 본래 Oberman교수의 전공은 신학사상사였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 도착한 후부터 중세신학사상과 종교개혁사상과의 상호연관성 즉 사상적계보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거둔 열매가 <중세신학의 수확>이었다.⁴³⁾ 그후 계속하여 Oberman 교수는 중세신학사상과 종교개혁사상 사이에 지적 내지 사상적 가교를 놓은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Medievalist요 또한 신학적 지성사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제자로서 현재 중견사가로 활동하고 있는 3인의 역사가를 꼽을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William Courtenay, Stenen Ozment, David Steinmetz등이 현재 일선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⁴⁴⁾ 여기서 잠간 3인의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소개할 것

42) John P. Donnelly, *Calvinism and Scholasticism in Vermingli's Doctrin of Man and Grace*(Leiden, Brill, 1976)

Robert Kolb, *Nikolaus von Amsdonf*(1483-1565) (Nieuwkoop, De Graaf, 1970)

Jerome Friedman, *The Most Ancient Testimony, Sixteenth Century Christian Hebraica in the Age of Renaissance Nostalgia*(Athens, Ohio University Press, 1983)

43) Heiko Oberman, *Harvest of Medieval The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44) William Courtenay and Heiko Oberman, ed., *Gabriel Biel Canonis*

같으면 다음과 같다. Ozment교수는 루터가 1517년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비주의 내지 신비사상을 중세의 Tauler나 Gersen등이 가지고 있었던 신비사상과 연결시킴으로서 양자간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규명하려고 시도한 사람이고 Steinmetz교수는 Luther와 그의 스승이었던 Sraupitz 와의 사상적 연계성을 규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Steinmetz 교수는 1985년 미국교회사학회 회장을 지냈고 William Courtenay는 1988년에 지낸바 있다.

끝으로 프랑스의 아날학파(The Annales Schoal)의 노동자들의 심리적 정황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Natalie Z. Davis 여사와 Indiana대학교에서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종교개혁사를 연구하고 있는 Gerald Strauss 교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⁴⁵⁾

맺는 말

지금까지 100년에 걸쳐 진행된 미국의 종교개혁사연구의 발자취를 대충 더듬어 보았다. 독일을 떠나서 미국처럼 활발하게 종교개혁사를 연구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국가는 아마도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에는 루터파 신학교(st. Louise, Concordia Theological Seminary)안에 종교개혁사 연구

Misse Ewpositio(Wiesbaden, Steiner, 1963-1967)

Steven Ozment, *Homo Spiritual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thropology of Tauler, Gerson, and Martin Luther, 1509-1516* (Leiden, Brill, 1968)

David C. Steinmet, *Luther and Staupitz: An Essay in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0)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New Haven, 1980)

45) Natalie Z. Davis, *Society and Culture in Early Modern France*(Stanford University Press, 1975)

Gerald Strauss, *Luther House of Learning*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소가 설도되어있으며 그 자매 학회로서 16세기 사학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계간지로서 <Journal of 16th Century>를 간행하고 있다. 저자는 아직 미국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 역사가들이 현재까지 종교개혁사를 어떻게 연구해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별도로 취급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그 작업은 훗날로 미루고자 한다. 그리고 종교개혁사를 연구하고 있는 신진 사가들의 연구업적에 대해서도 취급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 문제에 대하여도 훗날에 미루기로 한다.